

제III부

태 (Voice)

제12장에서는,

12. 1에서 「태(態)」를 정의하고,
12. 2에서 사역태(使役態)의 구조,
12. 3에서 수동태(受動態)의 구조,
12. 4에서 허용태(許容態)의 구조,
12. 5 및 12. 6에서 태에 놓여진 기(基)를 설명한다.
12. 7에서는 고전어의 「존경(尊敬)」의 구조를 조금 언급한다

제12장

태 (Voice)

12.1 「태」의 정의

「태(態)」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A와 속성Z가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체B가 특정의 의미관계(태속성(態属性) · T)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른다.

속성Z는 주체B와 직접 관계하는 경우(図12-1)와 관계하지 않는 경우(図12-2)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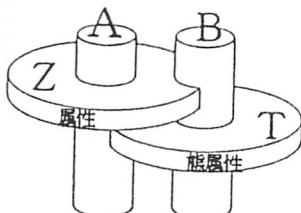


図12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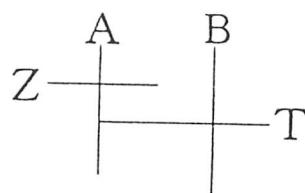


図12-2

특정의 의미관계(態 · T)에는 기본적으로 표12-1에 나타낸 3종류가 있다.

표12-1

(3종류의 태)

| | |
|----------|--|
| 사역태(使役態) | 주체A와 속성Z가 결합하는 것을 주체B가 끈다. 태속성은 -(s)as- (s)는, 모음에 연결될 때 에 출현한다. |
| 수동태(受動態) | 주체A와 속성Z가 결합한 영향을 주체B가 받는다. 태 속성은 -(r)ar- (r)은, 모음에 연결될 때에 출현한다. |
| 허용태(許容態) | 주체A와 속성Z가 결합하는 것을 주체B가 허용한다. 태속성은 -e- |

이 3종류의 태를 각각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자.²⁴⁾

12.2 사역태(使役態)..... 「동작사역태(動作使役態)」와 「의지사역태(意志使役態)」가 있다

「동작사역태」는 피사역주체(被使役主体) (A)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역주체(使役主体) (B)가 피사역주체(A)와 그 속성(Z)의 결합을 강요하는 것이고, 「의지사역태」는 피사역주체(A)

24) 일본어의 -(s)as-에 해당하는 것은 몽골어에서는 -uul-이나 -lga-, 터키어에서는 -dir-, 한국어에서는 -i-나 -hi- 등이다. -(r)ar-에 해당하는 것은 순서대로 -gd-, -nil, -i나 hi 등이다.

의 의지를 내세워 그 결합을 강요하는 것이다.

또, 이 양자에는 피사역주체(A)와 태속성(T)의 격관계에 관해서 상이점이 보이고, 전자에서는 「を格」, 후자에서는 「に格」이 된다.

「動作使役態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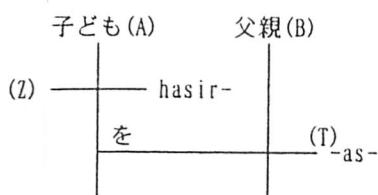


図12-3 父親が子どもを hasir-as-

「意志使役態」(意志動詞使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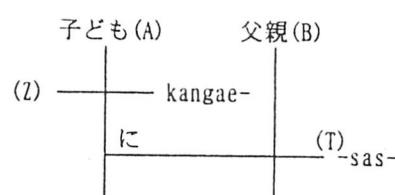


図12-4 父親が子どもに kangae-sas-

세 실체가 관계하는 의지사역태의 일례를 표시해 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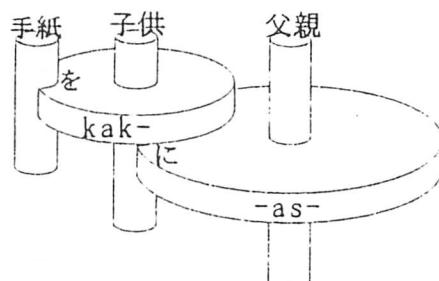


図12-5 父親が子どもに手紙を kak-as-

12.3 수동태(受動態)……「직접수동태(直接受動態)」와 「간접수동태(間接受動態)」가 있다

「직접수동태」에서는 속성의 객체가 되어 있는 실체가 수동태속성(受動態属性)-(r)ar-의 주체가 되고 (图12-6, 8), 「간접수동태」에서는 속성의 객체가 되어있지 않은 실체가 수동태속성-(r)ar-의 주체가 된다. (图12-7, 9) 후자는 「迷惑の受身」라고 불리고, 일본어 특유의 수동태로 일컬어지고 있다.²⁵⁾

「直接受動態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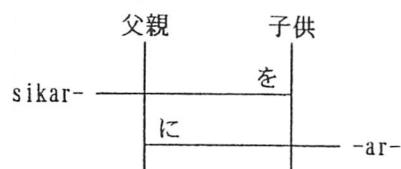


図12-6 子供が父親に sikar-ar-

「間接受動態」(迷惑の受身)



図12-7 私が(は)雨に hur-ar-

25) 迷惑의 수동은 서구어에는 없다고 전해진다. 또 한국어에도 없다.

「直接受動態」



図12-8 屏がtukur-ar-

「間接受動態」(迷惑の受身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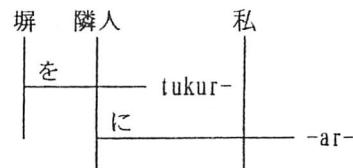


図12-9 屏をtukur-ar-(迷惑)

「屏が作られた(울타리가 만들어졌다)」에서는 폐를 끼침이 아닌데도 왜 「屏が」의 「が」를 「を」로 바꾸는 것만으로 폐를 끼침의 표현으로 바꾸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. 이 의문에 대답하는 데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그림을 보이면 좋을 것이다.

그리고, 「隣人によって屏が作られる(이웃사람에 의해 울타리가 만들어지다)」와 같은 「～によって(～에 의해)、～られる(～되다)」의 형식에 대해서는 12.6에서 다룬다.

또, 「準直接水動태(準直接受動態)」(소유주의 수동태)라고 불리우는 것도 있다. 구조는 図12-10,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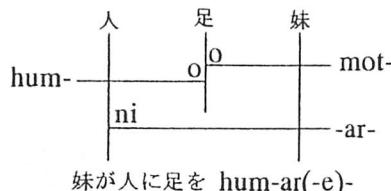


図12-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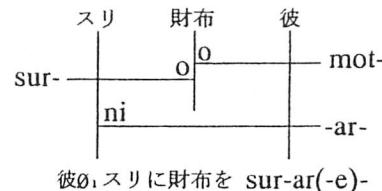


図12-11

◎ 말속의 수동태(受動態)

한마디 말로 간주되는 형태 속에는 수동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. 그 경우 「分かる(알다)」와 같이 태속성 -ar-의 주체가 동속성의 객체가 되어있을 때 속성과 태속성의 일체화가 생겨서 동일속성에 두 주체가 서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. (図12-12, 13) 그 경우는, 「彼が英語が～(그가 영어가～)」와 같이 이중주어가 된다.

(이중주어에 대해서는 제VII부에서 다룬다.)

「分かる」안의 수동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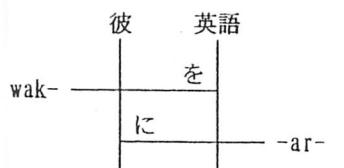


図12-12 英語が彼に wak-ar-

彼는 영어가 wak-ar-



図12-13 彼が英語が wak-ar-

영어는 그가 wak-ar-

彼 ϕ 는 영어를 wak-ar- (속성일체화(属性一体化) 중간형태)

wak-는 고어에서 「상이점을 보고 명확하게 구별하는 의미」(『岩波古語辞典』)

12.4 허용태……「대타히용태(對他許容態)」와 「대자히용태(對自許容態)」가 있다

12.4.1 대타허용태……許容主体와 被許容主体가 다르다.

- ① 대타허용태의 1) 속성이 -e- 의 주체를 객체로 하지 않는 경우……「능동(能動)」·「가능(可能)」

「능동」(허용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. 사역태(使役態)에 가깝다.)



图12-14 彼の馬を narab-e- (並べる)

「가능」(허용자가 상황 등 막연한 것. 영어라면 it로 표현하는 것 같은 것이다. 속성이 일체화한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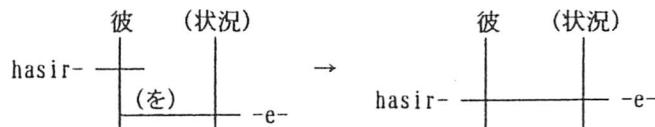


图12-15 彼は hasir-e- (走れ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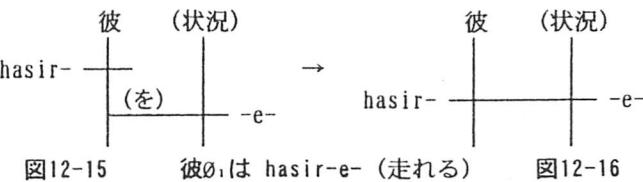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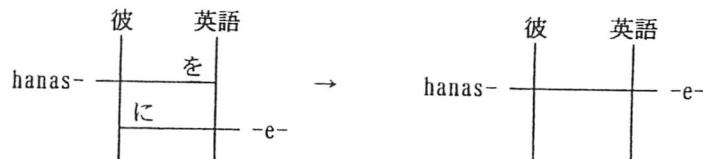


图12-16

- ② 대타허용태의 2) 속성이 -e- 의 주체를 객체로 하는 경우……「가능」·「자연발생」

「가능」(속성의 주체가 유정물(有情物)인 경우, 속성일체화(属性一体化))

图12-17 彼に英語が hanas-e- (話せる) 图12-18 彼が英語が hanas-e-
彼が英語を hanas-e- (属性一体化中間形態)

「자연발생」(속성의 주체가 비정물(非情物) 혹은 상황등 일 때)
(속성의 주체가 유정물(有情物)이어도, 상황에 중점을 둘 때)

图12-19, 20에서는 표충문에서 「枝が揺れる(가지가 흔들리다)」, 「歯が抜ける(이가 빠지다)」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. yur-, nuk-의 주체는 주어가 되지 않는다. 图12-21, 22에서는 「富士山」, 「(あの)映画」가 (유정물)주체에 그 속성과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충문의 주어는 「富士山」, 「映画」 쪽이다. 그러나 유정물이 주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. (속성일체화(属性一体化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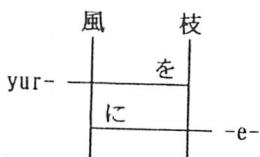


图12-19 風に枝が yur-e- (揺れ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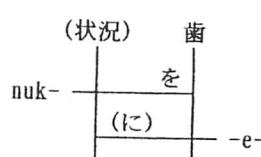


图12-20 歯が nuk-e- (抜け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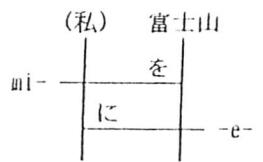


图12-21 富士山が mi-e- (見え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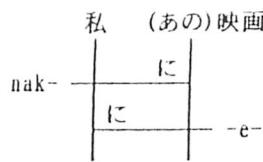


图12-22 (あの)映画が nak-e- (立ける)

12.4.2 대자허용태(對自許容態)……허용주체와 피허용주체가 같기 때문에 그리스어와 같이 「중동태(中動態)」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겠다. 속성·주체의 일체화가 일어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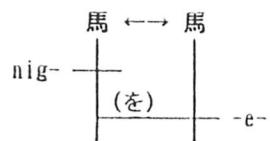


图12-23 馬が nig-e- (逃げる)



图12-24 (属性·主体一体化)
(参考:nig-as-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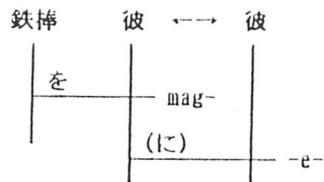


图12-25 彼が mag-e- 鉄棒を 引く (引く)



图12-26 (属性·主体一体化)
(参考:mag-ar-)

12.5 기(基)……基라고 하는 것은 詞(5.1참조)가 몇 개인가 모여서 하나로 정리된 것으로 전체로서 일정한 형식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, 다음과 같은 것이 인정된다.

사역수동기(使役受動基) 이하에는 이외에도 종류가 약간 있다.

더욱이 여기에서는 「基」은 「態」로 바꾸어 말해도 좋다. (예: 사역수동태)

- 1) 사역기(使役基) -(s)as-e-
- 2) 수동기A(受動基A) -(r)ar-e-
- 3) 수동기B(受動基B) -(r)ar-e-
- 4) 사역수동기(使役受動基) -(s)as-ar-e- / -(s)as-e-rar-e-
- 5) 이중사역기(二重使役基) -(s)as-as-e- / -(s)as-e-sas-e-
- 6) 이중사역수동기(二重使役受動基) -(s)as-e-sas-e-rar-e-

1) 사역기(使役基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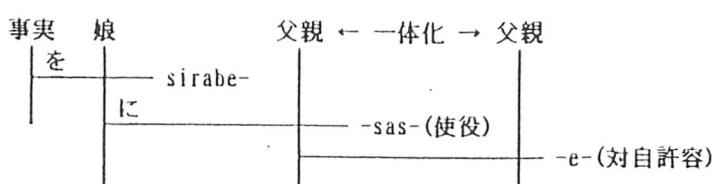


图12-27 父親が娘に 事実を sirabe-sas-e- (調べさせる)

통상은 -sas-e-의 부분을 일체화하여, 図12-28과 같이 구조도시(構造図示)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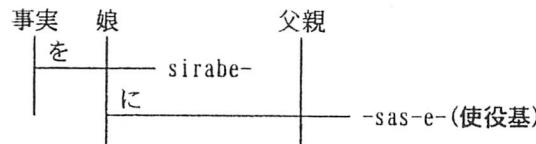


图12-28 父親の娘に事実を sirabe-sas-e- (調べさせ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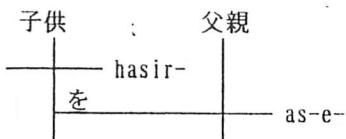


图12-29 hasir-as-e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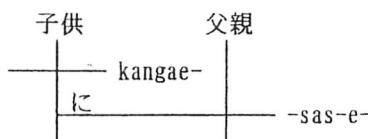


图12-30 kangae-sas-e-

2) 수동기A..... 「受動」·「自発」의 의미가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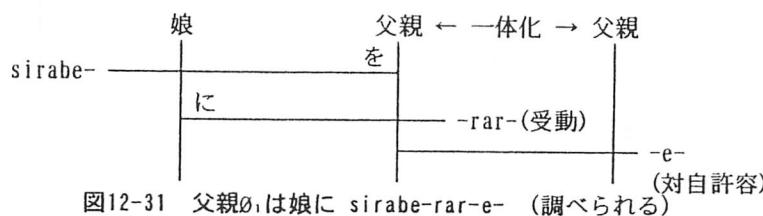


图12-31 父親の娘に sirabe-rar-e- (調べられる)

통상은 -rar-e-의 부분을 일체화하여, 図12-32와 같이 구조도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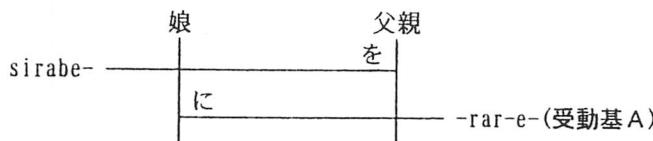


图12-32 父親の娘に sirabe-rar-e- (調べられる)

[수동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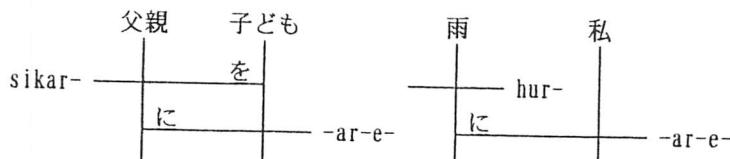


图12-33 sikar-ar-e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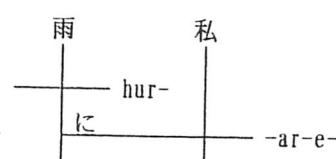


图12-34 hur-ar-e-

「자발」... 속성이 「考える kangae- 생각하다」, 「思う omo(w)- 생각하다」, 「恨む uram- 원망하다」, 「忍ぶ sinob- 견디다」 등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때에는 「자발」이 된다. 「~には、~が一れる」의 형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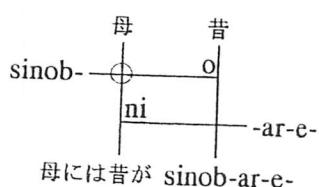


图12-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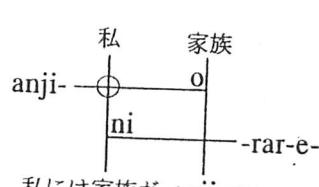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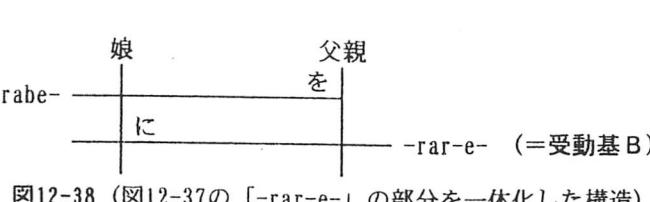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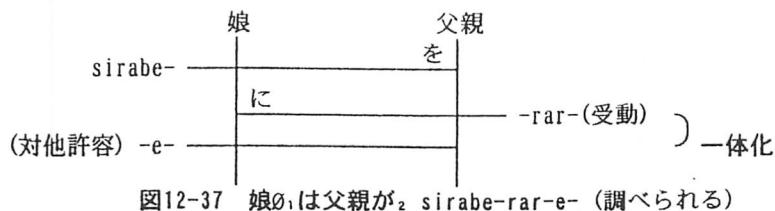


图12-36

3) 수동기B..... 「가능」, 「존경」의 의미가 된다. -(r)ar- 와 -e- 는 일체화



「娘(딸)」이 「父親が sirabe-rar- 아버지가 조사되는 것」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구조의미가 있다.

①娘 ϕ は父親を sirabe-rare-

딸은 아버지를 조사당했다

②娘 ϕ は父親が₂ sirabe-rar-e- (이중주어)

딸은 아버지가 조사되었다

③娘には父親が₂ sirabe-rar-e-

딸은 아버지를 조사할 수 있다

④父親 ϕ は娘に sirabe-rar-e-

아버지는 딸에게 조사되었다

④의 예문 「父親 ϕ は娘に sirabe-rar-e-」는 「수동」의 표충문으로도 있을 수 있다 (图 12-31, 二義) 그러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에 차이가 있다.

「가능」의 경우에는 발음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-rar- 의 ra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. 소위 ラ탈락이라고 한다. 단 구조형식은 그대로 유지된다.

⑤娘には父親が₂ sirabe-r-e-

딸은 아버지를 조사할 수 있다

더욱이 書く (kak-) 와 같이 어간(語幹이)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, 이 형식이 아니라 图 12-15, 17과 같은 허용태-e-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.

또 하나의 「가능」의 예를 들어보자. (图12-39, 4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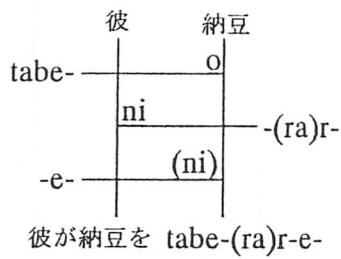


図12-3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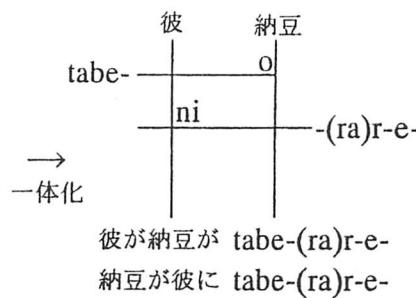


図12-40

「존경」…… -(r)ar-의 주체가 「발화자의 의식」인 경우 「존경」이 된다. 발화자의식이 주격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의식 그 자체가 말로 표현되는 경우는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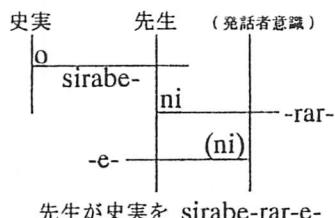


図12-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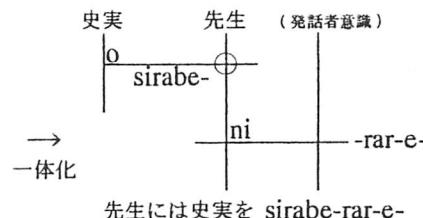


図12-42

4) 사역수동기(使役受動基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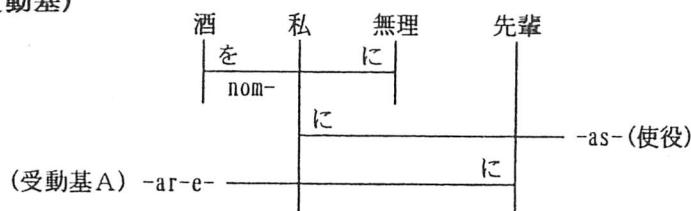


図12-43 私に先輩に無理に酒を nom-as-ar-e-

그림 중의 「無理に」는 図12-44의 구조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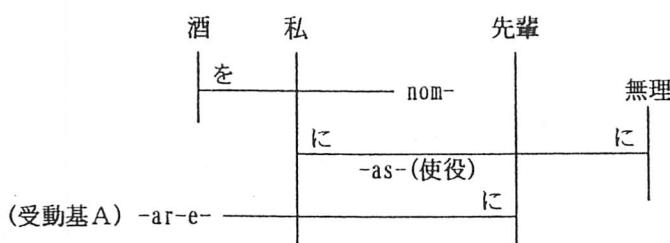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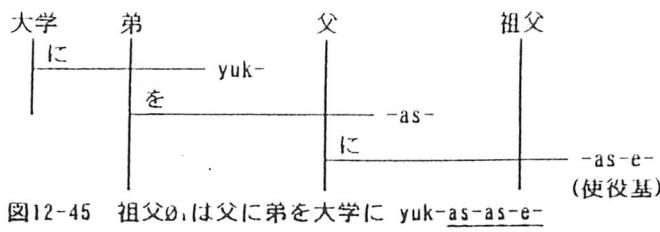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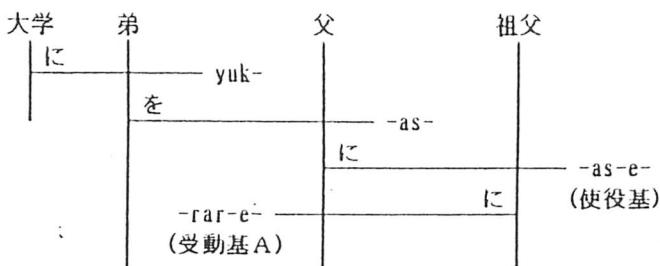
図12-44 私に先輩に無理に酒を nom-as-ar-e-

o) 「無理に」와 같이, 태속성에 직접 관계하는 요소도 있다.

5) 이중사역기(二重使役基)



6) 이중사역수동기(二重使役受動基)(수동과 가능)



마지막의 '-rar-e-'의 부분이 수동기B의 [가능]의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.

祖父が父に弟を大学に yuk-as-as-e-rar-e- (가능)

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도록 하게 할 수 있다.

12.6 「～によって基・～により基」

더욱이 수동태에서는 생산자나 원인 등을 나타내는 동작주체는

-ni=yor-i=te-∅ 「～によって」

-ni=yor-i 「～により」

라고 하는 기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, 그 경우의 구조는 図12-47, 48과 같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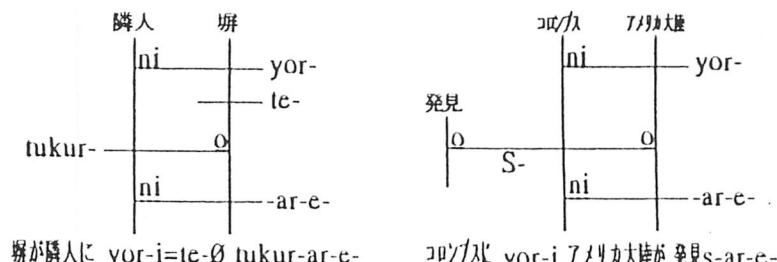


図12-4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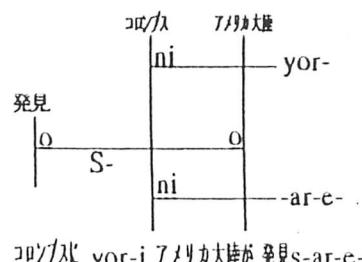


図12-48

여기에 사용되는 「よる(의하다)」는 「そのことに基づく(그것에 의한다)」가 원래 의미이다.

12.7 「いらっしゃる」…… 고전이의 「존경」의 구조

先生が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
선생님이 이쪽에 계시다

의 「いらっしゃる」는 「いらせらる」가 바뀌어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. (『日本文法大辞典』)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소분석(形態素分析)이 가능할 것이다.

ir-as-e-rar-u(いらっしゃる) (ir- 는 「进入」)

→ ir-as-sy as-u(いらっしゃる)

그러면 이 「いらせらる」의 구조는 図12-49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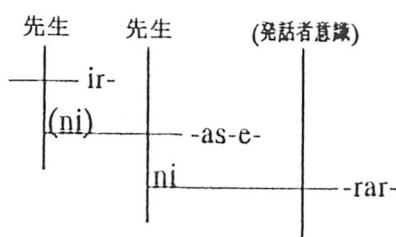


图12-49 先生(に)(は)いらっしゃる

이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「先生」이라고 하는 같은 주체가 2개 있다는 것이다. 이것은 고전이의 존경구조의 특징으로 대자사역(對自使役)의 구조이다. 고귀한 인물은 스스로 자신을 사역한다고 하는 형식이 된다. 이러한 의미에서 -(s)as-형태에도 중동태(中動態)가 인정되는 것이 된다. (-e-에 의한 중동태에 대해서는 12.4.2참조)

이 대자사역(中動態)의 사고 방식은 이 문법이 주장하는 바이다. 종래에는 고귀한 인물이 시중드는 자를 사역하는 형태의 표현이라고 해설되었다.

『岩波古語辞典』『助詞助動詞詳説』 등) 그러나, 그러한 취급법에서는

人のそりをもえはばからせ給はず (源氏物語, 桐壺)

(다른 사람의 비난을 마음쓰지 않음은 불가능하다)

와 같이 명확히 본인의 기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(はばかる)의 경우 등에서도 다른 인물에게 그렇게 사킨다고 하는 불합리한 것이 되어 버린다.

더욱이 図12-49의 -(s)as-e-rar-의 구조는 「しやる」, 「さしゃる」의 구조이기도 하고 소위 고전이에 있어서의 「존경기(尊敬基)」의 하나이다.

왜 「英語がわかる」는 「英語が」라고 하는가? → p. 80

왜 「富士山が見える」는 「富士山が」라고 하는가? → p. 81

일본어에는 중동태라는 것이 있는가? → p. 82/p. 86

왜 「～られる」는 수동·자발·가능·존경이 되는가? → p. 83